

인구 감소 지역에 최대 210억 지원

광주 동구·신안군 등 다양한 문화·관광사업 발굴

인구 문제 심각한 전남도 전국 최다 882억 지원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동구와 신안군이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금액인 21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관광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제의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

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천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2년간 인구감소 지역에는 최소 112억원(올해 48억원,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이 배분된다.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

체는 신안,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과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모두 5곳이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한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이 포함됐다. /김재정기자·연합뉴스

연휴 끝 확진자 폭증

5시 기준 광주·전남 1만1천100명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복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1만 명을 넘어선 등 폭증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전남도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5천400명, 전남 5천700명 등 총 1만1천100명이다. 자정 집계 분까지 더하면 1만2천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일 1만146명(광주 4천804명, 전남 5천342명)을 기록한 이후 6일만의 1만명대 진입이다.

광복절 연휴 기간엔 ▲13일 9천512명(광주 4천486명, 전남 5천26명) ▲14일 5천496명(광주 2천714명, 전남 2천782명) ▲15일 6천102명(광주 2천660명, 전남 3천442명)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병·의원 휴무에 따라 RAT(신속항원검사) 검사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광주에서는 사망자는 없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15명, 병원 입원 치료자는 24명이다.

전남에서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2천3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27개소에서 76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2명(누적 541명), 위중증 환자는 22명이다. 시·군별로는 여수 713명, 순천 693명, 목포 511명, 광양 322명, 나주 216명 등 시(市) 단위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60대 이상 확진자가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여 4차 백신 접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력과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함께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기자



코로나 확산...노인복지시설 방역조치 강화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당 입구에 시설사용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광주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의 구내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등을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정기자

‘국제관광박람회’서 전남 관광 흥행몰이

도, 힐링·체험형 테마상품 홍보...방문의 해 알리기 총력

전남도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이하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 테마상품 등 다채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와 전남도관광재단, 전남도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박람회에서 특색 있는 지역 관광상품 등을 널리 알렸다.

박람회에는 전국 181개 지방자치단체와 여행 업체 등이 참가했다. 전남에선

전남도와 목포, 순천, 나주, 곡성 보성, 화순, 영암, 함평, 장성, 신안 등 10개 시·군이 참여해 전남 관광지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롭게 출시한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코레일 연계 원스톱 할인 상품 등 체류형 테마상품 ▲화라이즌 시즌 드라이빙 등 힐링형 테마상품 ▲청년 남도문화페스티벌, 힐스테이스투어상품 등 체험형 테마상품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가운데 목포 드론 라이트 쇼, 구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Electronic Dance Music) 페스티벌, 캠핑박람회 등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벤트 행사를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량대첩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는 물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목받는 전남 안심 관광지, 전남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낚시 관광 등 주요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 수 있는 많은 관광상품을 준비했다"며 "전남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檢,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가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

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불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첫 개편, 실속·내실 방침

비서관급 직제 변경 등 재정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인적 쇄신 보다는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론에 “어떤 정치적인 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저조한 국정 지지도를 받들기 위해 국민 전환용 카드로 참모들을 물갈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평소 인사 철학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

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측근에게 빚발치는 쇄신 요구에 중점을 잘 잡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 규모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17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교체보다는 일부 기능 보강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을 비롯한 1기 참모진의 뼈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서관급 일부 교체 가능성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역할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전남 경관 바꿀 간판디자인 공모

전남도는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발굴·정리하고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제20회 전남도 옥외광고대전’을 개최기로 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옥외광고대전은 남도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간판 조형물과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다. 모집 분야는 우수 옥외광고물(창작·기존) 분야와 예쁜 간판

그림 등 4개 유형으로 광고업 종사자,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며(새전남도옥외광고협회나 협회 시·군 지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독창성과 창의성, 조형성, 소재활용성, 상품성, 윤리성 등을 중점 평가해 오는 10월 7일 전남도 누리집에 입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 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

집단지혜의 법원채권추심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빵, 월세빵빵,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